# 2022-2학기 학습성공스토리 공모 에세이 참가 신청서

※ 휴먼명조 11p, 줄 간격 160%, 전체 2페이지 이상 (2,500자 내외)

| 인적 사항 | | | | | |
|---|---|---|---|---|---|
| 소 속 | 법사회대학/법학과 | 학 번 | | 비고 | 편입생<br>타학과 수업 |
| 이 름 | 조** | 연락처 | | | |

| 제 목 | 경험의 확장 그리고 연상하기 | | |
|---|---|---|---|
| 교과목 | 경제원론2 | 담당 교수명 | 맹경희 교수님 |
| 구 분 | (부)전공 | | |

가. 내가 추천하는 명강의를 통한 성공적 학습 경험 (2452자)

**경험의 확장 그리고 연상하기**

학생들에게는 각자 재능이 있다. 하지만 그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역시도 그렇다. 단순하게 학점만을 채우려고 수업을 들었다면 내가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 알아차릴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수업만을 듣고 교재를 읽지 않았다면 새로운 창업 아이템 소재를 발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경제학 수업의 경험은 '매 수업에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수업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해한다면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교수님께서는 교재의 내용을 정리한 유인물을 사이버캠퍼스에 첨부해주셨다. 당시 임신을 하고 있었던 나의 경우, 무거운 전공서적을 들고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은 큰 장점이었다. 유인물은 교재와 같은 흐름으로 요약이 되어, 강의를 들으면서 온전히 이해를 하면 집에 가서 유인물을 한 번 복기시키고 교재를 읽으면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중간고사 전까지는 단순히 정보전달의 개념전달의 강의를 진행하셨고 매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전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시작하셨다. 중간고사 후의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거친 뒤에는 교수님께서는 한 챕터가 끝날 때 연습문제를 함께 풀어주시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셔서 해당 단원의 중요한 개념이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보고, 또 응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나만의 학습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노트필기를 하면서 연상하고 연결시켜보는 노력을 하였다. 수업시간에 유인물로 강의에 집중하면서 그 내용을 내가 경험한 내용이나 현상에 접목을 시켜보려는 연습을 많이 했다. 이러한 노력은 수업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노트필기의 경우 유인물을 기반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하시는 내용에는 밑줄을 긋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x축과 y축의 항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따라서 그렸다. 연상하고 연결시켜보는 연습은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하면, 머릿속으로 일상 생활의 예를 들어가면서 답을 찾아가려고 했다. 예를 들면 화폐시장의 균형은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이 있다. 이를 실생활에 대입시켜서 이해하면 지난해보다 이자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돈을 은행의 예적금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며, 대출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나 전세를 얻은 사람들은 이자율이 올라서 이를 처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떠올려 가면서 이자율 결정에 화폐수요가 중요하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외의 그 중 연상하여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는

교재에 나온 경제학자와 내가 본 영화의 캐릭터와 접목시켜보는 것이었다. 멜서스는 ' 인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식량 생산의 증가속도는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인간은 빈곤한 상태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전염병을 일부러 발생시켜 인구를 감축하거나, 자비롭지 않은 정책을 하여 인구 증가를 막아야한다 ' 주장을 하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식량생산이 그에 미치지 못하여 지구의 종말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지구의 종말을 막기위해 무작위로 인구의 절반을 줄이려 했던 마블 어벤져스 영화의 타노스는 멜서스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였다. 사회의 현상경험을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니, 더 오래 기억하고 경제학에 대한 흥미도 높아졌다. 두번째는 교수님께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면서 교재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공부했다. 처음에는 강의내용을 떠올려가면서 가볍게 읽었고, 노트북으로 교재를 요약해가면서 나만의 요점노트를 만들었던 것이 효과적이었다. 어떤 것들이 중요하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내용들이 시험에 나와서 효과적이었다.

육아와 병행하고, 임신한 상태에서 다른 학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편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학습할 시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때문에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들은 기억과 시험기간 전에 학습내용을 복습한 기억에만 의존해서 시험을 볼 수 밖에 없었다. 학업성과는 높은 편은 아니라서 아쉬움이 남았지만, 재밌게 공부했다는 것에서 참 의미 있는 수업이었다. 또한 교재를 읽어가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았고 그를 메모하고 기록하면서 나중에 창업 아이템으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아이템들을 구체화시켜서 향후 몇 년 후에 사업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다. 성적보다는 지식의 확장과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에 집중했더니 무엇을 더 배워보고 싶은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만 경험이 확장된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번 수업은 전공과 타전공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사고의 확장 뿐만 아니라 적성을 찾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

<정리>

가. 내가 추천하는 명강의를 통한 성공적 학습 경험

① 교수님 수업방법: 강의자료 형태 및 방식, 과제, 시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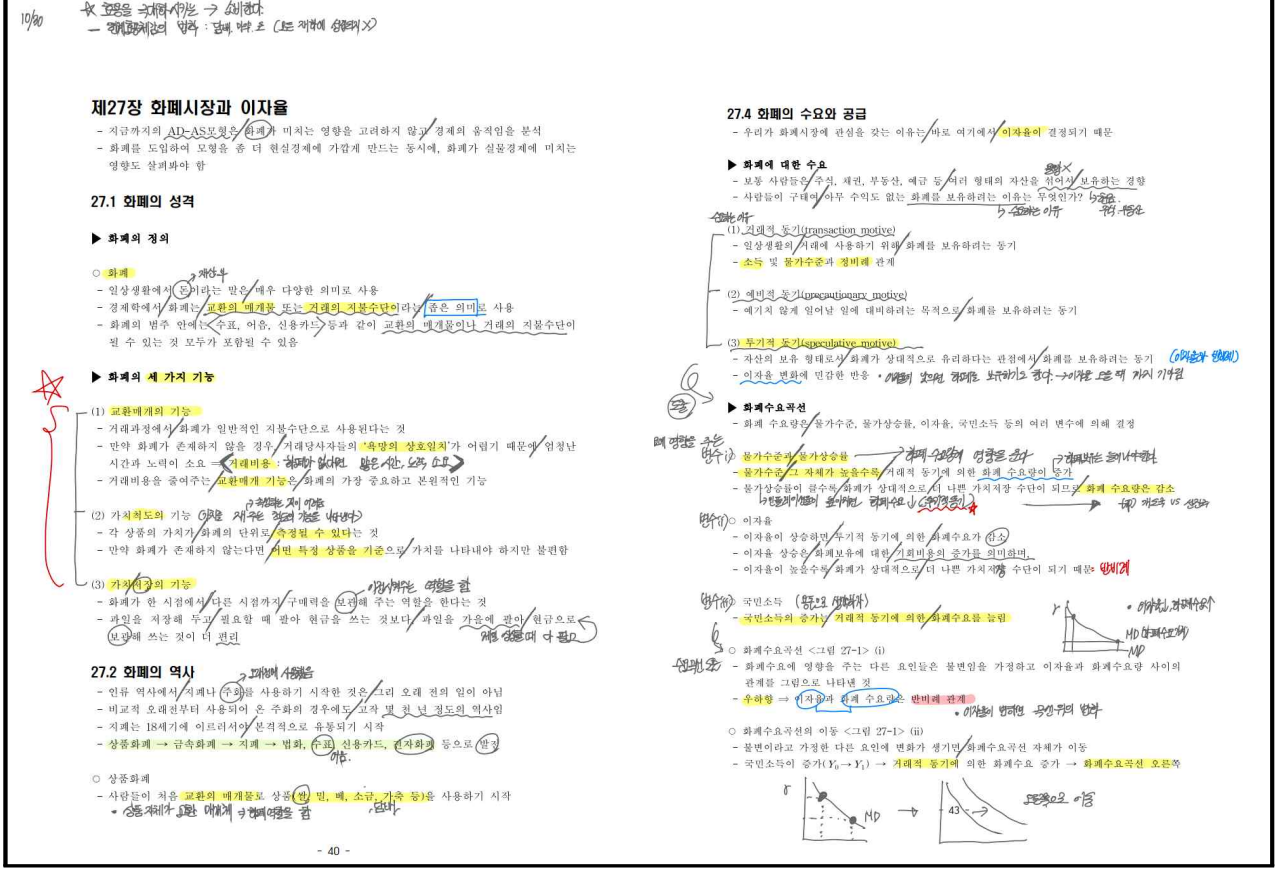
1. 강의자료 형태 및 방식

- 강의자료 형태 : 교수님께서는 유인물을 파일로 첨부해주셨다. 첨부한 유인물에는 교재 내용을 요약하였기 때문에 무거운 책을 들고 오지 않아서 좋았다.
- 강의방식 : 처음에는 강의자료를 이용한 정보전달 강의에 충실하셨다. 하지만 중간고사 이후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셨다. 도입부에는 지난 시간 강의를 요약정리해주시고, 한 챕터가 끝날 때 중요한 연습문제를 언급해주시고 함께 풀어가면서 마무리를 해서 좋았다.

② 학습방법: 교수님께서 미리 사이버강의실에 업로드를 한 요약본을 미리 다운 받았고, 수업시간에 그 유인물로만 강의에 집중하였다. 수업시간에 집중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실생활에 접목해가거나 내가 경험했던 현상에 대한 이유를 수업시

간의 내용과 비교해서 이해하니 오랜 시간동안 기억에 남았다.

- 노트필기 방법 : 수업을 들으면서 유인물에 메모를 했다.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언급하신 내용에는 밑줄을 그으려고 노력했고,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그래프를 그리시면 그려가면서 이해하려고 했다.



## 제27장 화폐시장과 이자율

- 지금까지의 AD-AS모형은 화폐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의 움직임을 분석
- 화폐를 도입하여 모형을 좀 더 현실경제에 가깝게 만드는 동시에, 화폐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함

### 27.1 화폐의 성격

▶ **화폐의 정의**

○ 화폐
- 일상생활에서 돈이라는 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
- 경제학에서 화폐는 교환의 매개물 또는 거래의 지불수단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
- 화폐의 범주 안에는 수표, 어음, 신용카드 등과 같이 교환의 매개물이나 거래의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것 모두가 포함될 수 있음

▶ **화폐의 세 가지 기능**

(1) 교환매개의 기능
- 거래과정에서 화폐가 일반적인 지불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
- 만약 화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거래당사자들의 '욕망의 상호일치'가 어렵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 → 거래비용
-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교환매개 기능은 화폐의 가장 중요하고 본원적인 기능

(2) 가치척도의 기능
- 각 상품의 가치가 화폐의 단위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
- 만약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특정 상품을 기준으로 가치를 나타내야 하지만 불편함

(3) 가치저장의 기능
- 화폐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구매력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 과일을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팔아 현금을 쓰는 것보다 과일을 가을에 팔아 현금으로 보관해 쓰는 것이 더 편리

### 27.2 화폐의 역사

- 인류 역사에서 지폐나 주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님
- 비교적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주화의 경우에도 고작 몇 천 년 정도의 역사임
- 지폐는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
- 상품화폐 → 금속화폐 → 지폐 → 법화, 수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발전

○ 상품화폐
- 사람들이 처음 교환의 매개물로 상품(쌀 및, 베, 소금, 가축 등)을 사용하기 시작

### 27.4 화폐의 수요와 공급

- 우리가 화폐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이자율이 결정되기 때문

▶ **화폐에 대한 수요**
- 보통 사람들은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선호하여 보유하는 경향
- 사람들이 구태여 아무 수익도 없는 화폐를 보유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1) 거래적 동기(transaction motive)
- 일상생활의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보유하려는 동기
- 소득 및 물가수준과 정비례 관계

(2) 예비적 동기(precautionary motive)
- 예기치 않게 일어날 일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화폐를 보유하려는 동기

(3) 투기적 동기(speculative motive)
- 자산의 보유 형태로서 화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관점에서 화폐를 보유하려는 동기
- 이자율 변화에 민감한 반응

▶ **화폐수요곡선**
- 화폐 수요량은 물가수준, 물가상승률, 이자율, 국민소득 등의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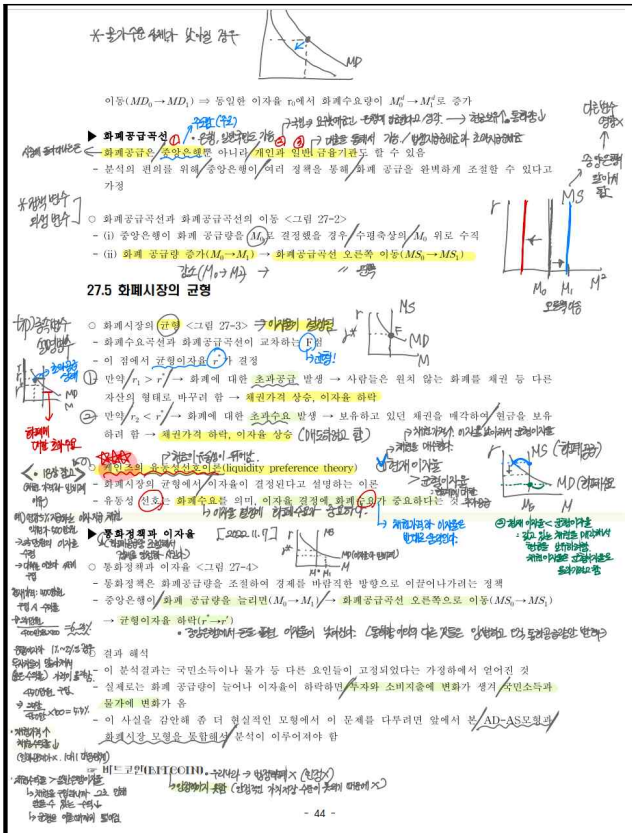
(i) 물가수준과 물가상승률
- 물가수준 그 자체가 높을수록,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량이 증가
- 물가상승률이 클수록, 화폐가 상대적으로 더 나쁜 가치저장 수단이 되므로 화폐 수요량은 감소

(ii) ○ 이자율
-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가 감소
- 이자율 상승은 화폐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 이자율이 높을수록 화폐가 상대적으로 더 나쁜 가치저장 수단이 되기 때문

(iii) 국민소득 (항등식 성립)
- 국민소득의 증가는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를 늘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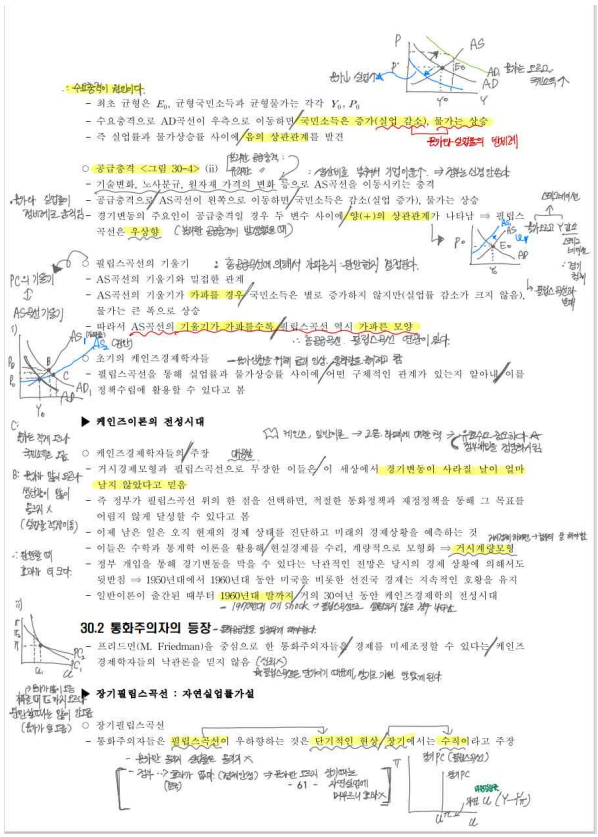
○ 화폐수요곡선 <그림 27-1> (i)
- 화폐수요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은 불변인을 가정하고 이자율과 화폐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 우하향 ⇒ 이자율과 화폐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

○ 화폐수요곡선의 이동 <그림 27-1> (ii)
- 불변이라고 가정한 다른 요인에 변화가 생기면 화폐수요곡선 자체가 이동
- 국민소득이 증가($Y_0 \rightarrow Y_1$) →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 증가 → 화폐수요곡선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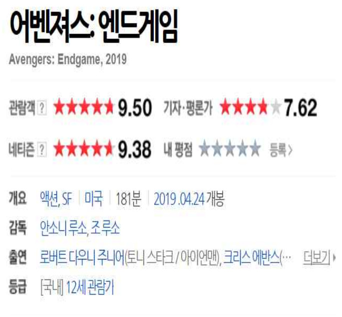
27.5 화폐시장의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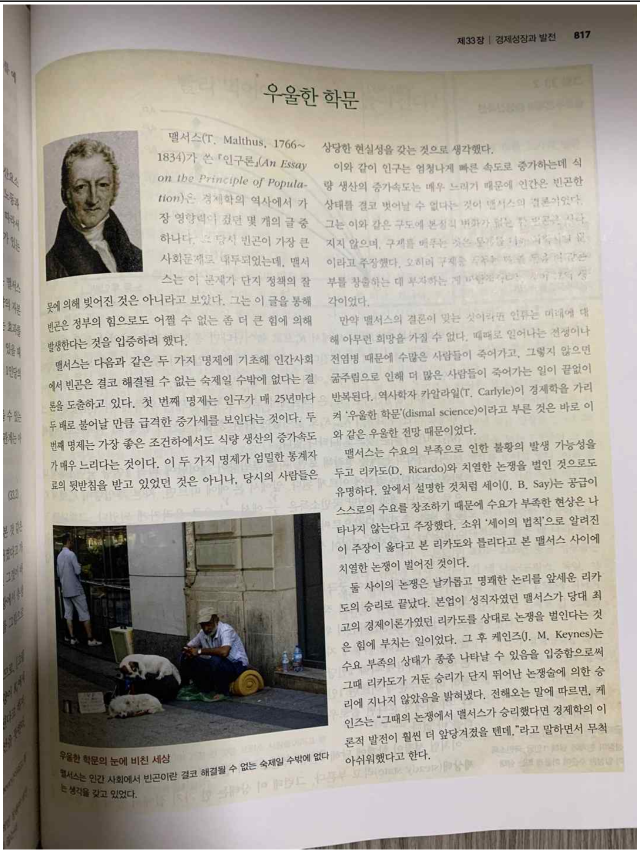
- 44 -



30.2 통화주의자의 등장

- 학습방법 : 쓰면서 기억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메모를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다. 교수님께서 경제학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실생활 현상들을 예로 생각해보고 이 개념의 정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답을 구해보려고 노력하였다. 이해가 잘 되었고, 응용도 잘되었고 기억도 오래 남았다. 또한 평소에 의문을 갖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개념을 더해서 생각해보니 사회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의문을 제기해가면서 인사이트를 확장할 수 있었다. 그 중 연상하여 생각하기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생각은 멜서스라는 학자는 '인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식량 생산의 증가속도는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인간은 빈곤한 상태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라면서, 정부는 전염병을 일부러 발생시키거나, 자비롭지 않은 정책을 하여 인구를 감소시켜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벤져스의 타노스의 생각이 이러한 학자의 주장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나 생각하면서 오래 기억할 수 있었다.





제33장 | 경제성장과 발전 817

우울한 학문

맬서스(T. Malthus, 1766~1834)가 쓴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은 경제학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몇 개의 글 중 하나다. 그 당시 빈곤이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는데, 맬서스는 이 문제가 단지 정책의 잘못에 의해 빚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빈곤은 정부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좀 더 큰 힘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다.

맬서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에 기초해 인간사회에서 빈곤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숙제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첫 번째 명제는 인구가 매 25년마다 두 배로 불어날 만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명제는 가장 좋은 조건하에서도 식량 생산의 증가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명제가 엄밀한 통계자료의 뒷받침을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당시의 사람들은 상당한 현실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와 같이 인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식량 생산의 증가속도는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인간은 빈곤한 상태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맬서스의 결론이었다. 그는 이와 같은 구도에 본질적 변화가 없는 한 빈곤은 사라지지 않으며, 구제를 베푸는 것은 [illegible]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illegible] 부를 창출하는 데 투자하는 [illegible] 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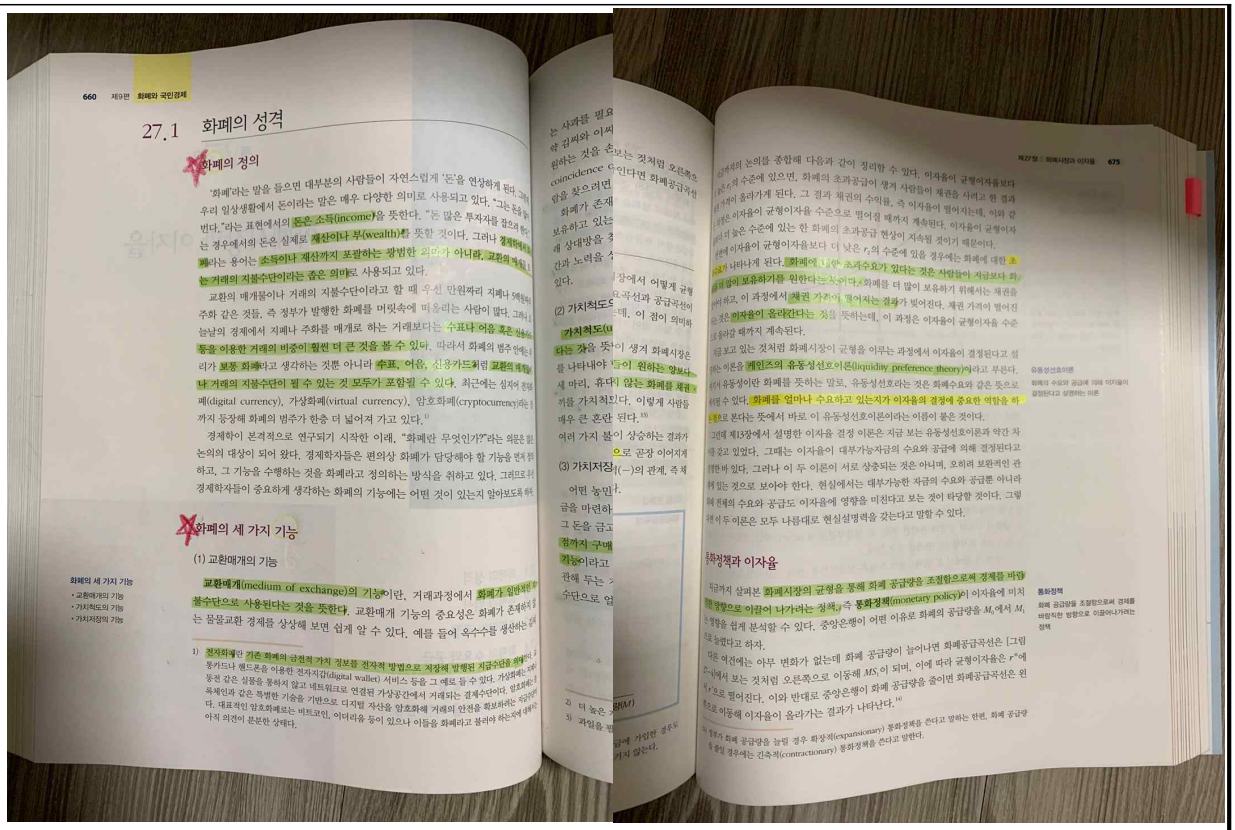
만약 맬서스의 결론이 맞는 것이라면 인류는 미래에 대해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다. 때때로 일어나는 전쟁이나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끝없이 반복된다. 역사학자 카알라일(T. Carlyle)이 경제학을 가리켜 '우울한 학문'(dismal science)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우울한 전망 때문이었다.

맬서스는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불황의 발생 가능성을 두고 리카도(D. Ricardo)와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이(J. B. Say)는 공급이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하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위 '세이의 법칙'으로 알려진 이 주장이 옳다고 본 리카도와 틀리다고 본 맬서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둘 사이의 논쟁은 날카롭고 명쾌한 논리를 앞세운 리카도의 승리로 끝났다. 본업이 성직자였던 맬서스가 당대 최고의 경제이론가였던 리카도를 상대로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그 후 케인즈(J. M. Keynes)는 수요 부족의 상태가 종종 나타날 수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그때 리카도가 거둔 승리가 단지 뛰어난 논쟁술에 의한 승리에 지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케인즈는 "그때의 논쟁에서 맬서스가 승리했다면 경제학의 이론적 발전이 훨씬 더 앞당겨졌을 텐데."라고 말하면서 무척 아쉬워했다고 한다.

우울한 학문의 눈에 비친 세상
맬서스는 인간 사회에서 빈곤이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숙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 교재읽기 : 교수님께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면서 교재 밑줄을 그어가면서 공부하니까 확장적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강의 후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재를 요약해서 교수님께서 수업하셨기 때문에 흐름대로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책을 읽으면서 강의 내용이 떠올라서 좋았다. 처음에는 강의내용을 떠올리면서 가볍게 읽고, 노트북으로 교재를 요약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었다. 만약 시간이 없다면 책을 읽고 강의 필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도 효과적이었다.


660 제9편 화폐와 국민경제

27.1 화폐의 성격

화폐의 정의

'화폐'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돈'을 연상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돈이라는 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는 돈을 많이 번다."라는 표현에서의 돈은 소득(income)을 뜻한다. "돈 많은 투자자를 잡으려 한다."는 경우에서의 돈은 실제로 재산이나 부(wealth)를 뜻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화폐라는 용어는 소득이나 재산까지 포괄하는 광범한 의미가 아니라, 교환의 매개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거래의 지불수단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교환의 매개물이나 거래의 지불수단이라고 할 때 수십 만원짜리 지폐나 5백원짜리 동전 같은 것들, 즉 정부가 발행한 화폐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에서 지폐나 주화를 매개로 하는 거래보다는 수표나 어음 혹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거래의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화폐의 범주 안에는 지폐나 주화뿐만 아니라 보통 화폐라고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수표, 어음, 신용카드처럼 교환의 매개나 거래의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것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최근에는 심지어 전자화폐(digital currency),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는 것까지 등장해 화폐의 범주가 한층 더 넓어져 가고 있다.[1]

경제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이래, "화폐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경제학자들은 편의상 화폐가 담당해야 할 기능을 먼저 정의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화폐라고 정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폐의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화폐의 세 가지 기능

(1) 교환매개의 기능

화폐의 세 가지 기능
• 교환매개의 기능
• 가치척도의 기능
• 가치저장의 기능

교환매개(medium of exchange)의 기능이란, 거래과정에서 화폐가 실제적인 지불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교환매개 기능의 중요성은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물물교환 경제를 상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옥수수를 생산하는 농

1) 전자화폐란 기존 화폐의 금전적 가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해 방법된 지급수단을 의미한다. 통카드나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지갑(digital wallet) 서비스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가상화폐는 이러한 물질 같은 실물을 통하지 않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거래되는 결제수단이다. 블록체인과 같은 특별한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대표적인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으나 이들을 화폐라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제27장 | 화폐시장과 이자율 675

...의 논의를 종합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자율이 균형이자율보다 ...의 수준에 있으면, 화폐의 초과공급이 생겨 사람들이 채권을 사려고 한 결과 ...이 올라가게 된다. 그 결과 채권의 수익률, 즉 이자율이 떨어지는데, 이와 같은 ...은 이자율이 균형이자율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이자율이 균형이자 ...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한 화폐의 초과공급 현상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자율이 균형이자율보다 더 낮은 $r_0$의 수준에 있을 경우에는 화폐에 대한 초 ...이 나타나게 된다. 화폐에 대한 초과수요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금보다 화 ...폐잔액을 더 많이 보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화폐를 더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어 하고, 이 과정에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결과가 빚어진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 ...는 것은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 과정은 이자율이 균형이자율 수준 ...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된다.

...림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화폐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설 ...명하는 이론을 케인즈의 유동성선호이론(liquidity preference theory)이라고 부른다. ...이 유동성이란 화폐를 뜻하는 말로, 유동성선호라는 것은 화폐수요와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폐를 얼마나 수요하고 있는지가 이자율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본다는 뜻에서 바로 이 유동성선호이론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그런데 제13장에서 설명한 이자율 결정 이론은 지금 보는 유동성선호이론과 약간 차 ...이를 보일 수 있었다. 그때는 이자율이 대부가능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두 이론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보완적인 관 ...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실에서는 대부가능한 자금의 수요와 공급뿐 아니라 ...화폐 전체의 수요와 공급도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 ...다면 이 두 이론은 모두 나름대로 현실설명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이자율

지금까지 살펴본 화폐시장의 균형을 통해 화폐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경제를 바람 ...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려는 정책, 즉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이 이자율에 미치 ...는 영향을 쉽게 분석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어떤 이유로 화폐의 공급량을 $M_0$에서 $M_1$ ...으로 늘렸다고 하자.

다른 여건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면 화폐공급곡선은 그림 ...에서 보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이동해 $MS_1$이 되며, 이에 따라 균형이자율은 $r^*$에 ...서 $r_0$으로 떨어진다. 이와 반대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줄이면 화폐공급곡선은 왼 ...쪽으로 이동해 이자율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난다.[10]

9) 정부가 화폐 공급량을 늘릴 경우 확장적(expansionary) 통화정책을 쓴다고 말하는 한편, 화폐 공급량을 줄일 경우에는 긴축적(contractionary) 통화정책을 쓴다고 말한다.

유동성선호이론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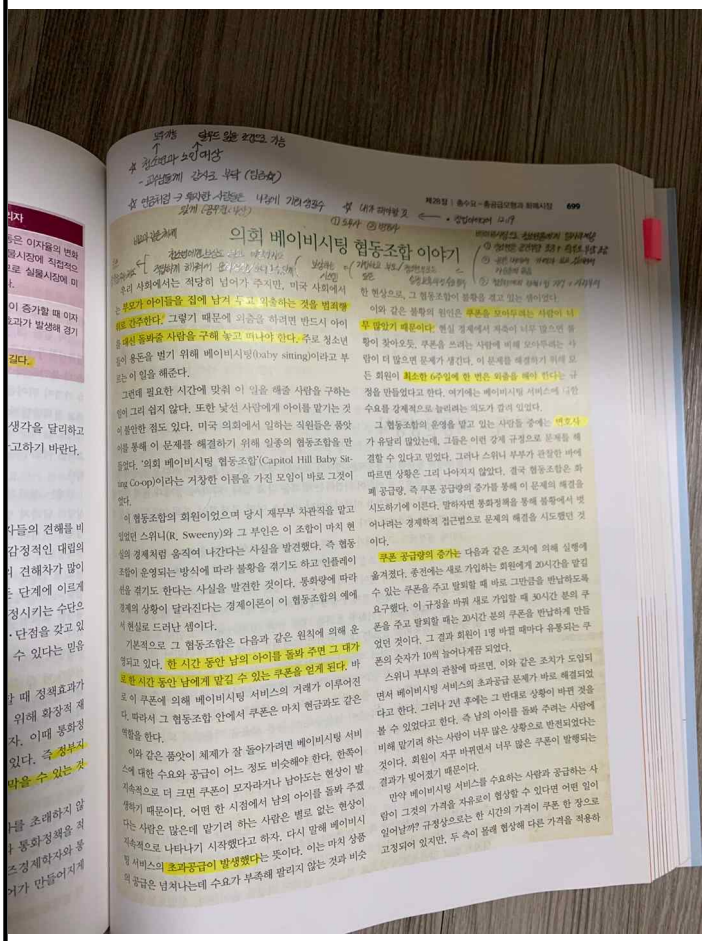
통화정책
화폐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경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려는 정책

③ 수강 후 자신의 변화: 학업성과, 자기계발 등 개인 성취 내용, 비교과 경험에서의 노력 등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을 기반으로 교재를 읽었다. 교수님께서 강의시간에 가볍게 소개만 하고 넘어갔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읽다보니 사고가 확장되었다.

- 학업성과 : 작년에 들었던 수업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 교재 위주로만 설명했던 지난 수업에서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론만 알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혀 감이 없었다. 하지만 교재선택에 있어서 한국의 경제상황을 적절하게 잘 반영하였고, 경제학과 학생이 아닌 타학과 학생임에도 수업을 통해서 지식의 확장을 많이 경험하였다. 금리와 물가와의 관계 등 왜 세상은 이렇게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많이 얻었다. 또한 교재에 없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세상의 원리를 알 수 있었다.
- 자기계발 : 성적보다, 지식의 확장과 함께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서 좋았다. 작년의 타교수님의 수업으로는 내가 경제학을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수업에 집중하고, 배우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뭘 더 배우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전에는 법학과의 대학원만을 생각하였는데, 경제학과 대학원에 가서 깊게 탐구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 창업 : 교재를 읽으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메모를 하였다. 그 중 창업을 하면 이런 아이템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책에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였다.



의회 베이비시팅 협동조합 이야기

④ 자기성찰: 수강 후 느낀 점 및 앞으로의 학습계획 및 목표 작성

- 학생들에게는 각자 재능이 있다. 하지만 그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학점만을 채우려고 했다면 나처럼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전공수업을 잘 들으면 학점만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재읽기도 소홀했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은 매 수업에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한다면 내가 수업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 졸업을 계기로 사이버캠퍼스의 수업들을 다시 한번 들을 예정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과목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부족한 것들을 방학동안 채우고 졸업을 하고 싶다. 신용보증기금 입사 준비를 하고, 입사를 하여 실무적인 것들을 배워서 향후 경제학과 대학원까지 가는 것이 목표이다.

-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 이외의 수업은 간접적으로 경험을 확장시킨다. 기회가 된다면 비교과 활동 뿐만 아니라 전공 외 전공 수업들을 많이 들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를 통해서 내 진로와 내 적성을 찾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연히 나 역시도 타 전공일 때 법학수업을 교양으로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적성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수업에 참여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 가서 대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들면 그 끝은

| |
|---|
| 화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 | |
|---|---|
| 당선작 및 응모작의 저작권 등 권한은 조선대학 CTL로 귀속되며, 제2차 저작물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및 학내 홍보물에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 비동의□<br>(해당란에 ☑) |

※ 비동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2022학년도 2학기 학습성공스토리 공모전 에세이 부문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년 12 월 08 일

제출자:___조** _(인 또는 서명)

**조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귀중**